

청와대 브리핑 오찬 간담회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과 발언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북핵 문제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지만, 지금은 북·미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면이므로 한·미 공조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상황을 조성해나가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주로 북미 간의 문제이면서 또한 남북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남북, 북미, 북일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모두가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러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핵심키는 북·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핵심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를 중심으로 하여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면이므로 3자 회담의 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무리하게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회담에 끼어들어 초점을 흐리기보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면서 한·미 공조, 한·미·일 공조로 이 문제가 잘 풀리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협력해나가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는 초기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든 국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개되어 가는 국면을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왜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북·미가 링에 올라와 있고, 중국이 심판 자격으로 올라와 있는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담의 장에서 내놓은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사태악화로 단정하여 강경대응할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한 시인은 북·미협상의 링, 또는 테이블에서 내놓은 협상카드 혹은 게임수단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태세를 갖추되, 이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해 당장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북·미간 협상에서 꺼내는 전략카드는 협상국면에서 의미있게 해석되어야지, 이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결정적인 문제로 대응하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서 한·미 공조로 대응해야 합니다.